

앞선 기술로 미래 건설

대림산업(주)

지 난해는 유난히도 기업도덕성 문제로 재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은 한 해였으나, 이런 어려움 중에서도 대림산업은 10년 가까이 실천해온 정도 경영으로 큰 힘을, 큰 빛을 발휘한 해였다.

이는 대림의 모든 임직원이 하나된 마음으로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을 창출하고, 광대 무한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한다는 기업 이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미래 창조, 인간 존중, 고객 신뢰' 라는 3가지 경영 원칙을 올바른 가치관과 방법에 의해 추구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세계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윤리 강령을 제정하고 실천 지침을 만들어 시행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윤리 경영

국내외를 막론하고 투명하지 못

하고 비윤리적인 경영 활동으로 인하여 시장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몇 십년간 애써 가꾸어 온 기업의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대림산업은 2000년 5월에 윤리 강령 및 윤리강령 실천지침을 선포하여 윤리 경영에 대한 의지를 천명한 바 있으며, 2003년 12월 윤리 경영 실천 강화를 위해 윤리강령 및 윤리강령 실천 지침을 구체적 행동 지침으로 개정하여 운영중에 있고, 2004년도부터 매년 윤리 경영 사 이버 교육 강좌를 개설하여 모든 임직원들이 필수 이수 과정으로 수강토록 하여 윤리 경영에 대한 임직원들의 의식 강화에 힘써 왔으며, 일선 조직에서의 윤리 경영 실천 여부의 점검을 강화하여 온 결과, 대내외에 깨끗한 기업으로의 이미지를 구축하여 왔다고 자부하고 있다.

단순히 법과 규정만을 준수하는 단계를 넘어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고객, 종업원, 주주, 협력 회사, 국

가와 환경 등 이해 관계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물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까지도 함께 실천하여 시장으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정도 경영

정도 경영이란 고객에게는 정직해야 하고, 협력 업체에 대해서는 공정한 거래를 하여 상호 발전을 추구하며, 경쟁사와는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주주와 사회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이든 사람이든 공정하고 철저한 경쟁을 통해서만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올해도 대림산업은 기본과 원칙 중심의 정도 경영을 바탕으로 모든 일에 임직원 모두가 열정과 역량을 하나로 모아 지속적으로 정도 경영을 가속화시키는 일에 앞장 설 것이다.



신고리 1,2호기 본관 기초 굴착 공사 현장. 영광 5,6호기 현장에 근무했던 대림의 젊은 직원들이 이제 각자가 현장에서 한 몫을 할 만큼의 실력을 갖추고 원전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시공 준비에 만전을 기해왔기 때문에 신고리 1,2호기도 성공적인 공사 수행이 될 것이다.

새해 원자력 사업과 계획

21세기에는 원자력 르네상스가 다시 올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19년의 난제 속에 갈등을 거듭했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이 지역 주민들의 선택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통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이는 에너지 백년대계(百年大計)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시발점이 되었기에 아주 의미있는 일이었다.

대림산업은 현재 가동중인 영광 원자력 5,6호기를 1995년 8월에

수주, 신규 업체로 참여하여 2002년 5월 21일 5호기, 2002년 12월 23일에 6호기 상업 운전을 거쳐 성공적인 공사를 마무리함으로써 기술 축적은 물론 원전 건설 참여자로서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1 신고리 1, 2호기 주설비 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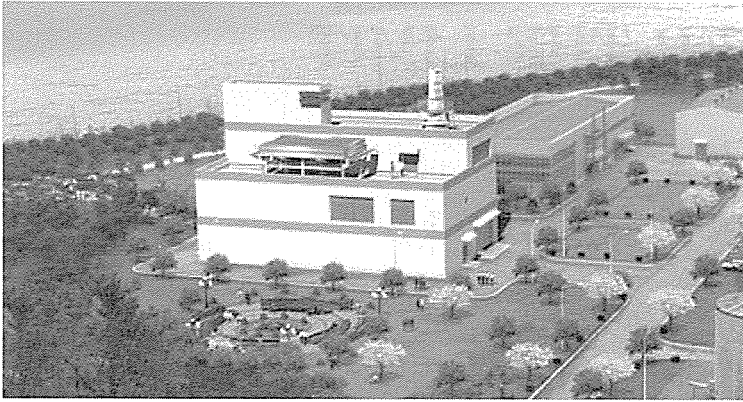
영광 원자력 5,6호기를 준공하고 나자마자 곧바로 신고리 1,2호기 주설비 공사 계약을 2003년 6월 13일에 체결하였다.

이후 공사 착수가 지연되었으나

전원 개발 사업 실시 계획 승인, 전기 사업 허가 취득, 원자로 시설 건설 허가 취득 등 운영 허가를 제외하고 중앙 정부의 인·허가를 완료하였고, 부지 정지 공사 촉진으로 본관 기초 굴착 착수를 3.5개월 조기 착수하여 관련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대림산업은 계획 공기를 준수하고 완벽한 설비 공사를 위하여 영광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더욱이 영광 5,6호기 현장에 근무했던 대림의 젊은 직원들이 이제



고리 원전 대체교류전원 디젤 발전이 건물 조감도. 대림산업(주)는 추후 발주가 예상되는 차세대 원전사업,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 및 성능 개선 사업에 적극 참여하기 위하여 수주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각자가 현장에서 한 몫을 할 만큼의 실력을 갖추고 원전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시공 준비에 만전을 기해왔기 때문에 신고리 1,2호기도 성공적인 공사수행이 될 것이다. 또한 공동 도급사간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통하여 원활한 공사 수행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2 고리원전 소내 정전 대처 설비 공사

본 공사는 고리 원전의 소내/외 교류 전원 및 비상 디젤 발전기가 동시에 상실되는 소내 정전(SBO: Station Blackout) 발생시 원자로를 안정 정지시키기 위한 대체 교류 전원(AAC) 디젤발전기를 설치함으로써 발전소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사이다.

특히 이 공사는 가동중인 원자력 발전소 내에서 비상 발전기 건물과

각 발전소로 연결되는 비상 전원 선로인 지하 매설 관로를 만들어 케이블을 포설해야 하는데, 지하 매설물에 대한 상세한 정보도 없고 굴곡개소가 많아서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원자력발전소는 민간 환경단체, 언론사, 지역 주민 등 외부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안전 사고에 만전을 기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으며, 원자력 안전성 향상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각오와 성공적인 2006년 6월 준공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3 새해 사업 계획

이제 대림산업도 최근에 발주된 원자력발전소 공사를 연달아 준공 및 시공함으로써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선두적 위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는 원자력 안전과 발전을 위하

여 더욱 완벽하고 책임감있게 시공하려는 대림산업 직원들의 합심된 노력의 성과이다.

추후 발주가 예상되는 차세대 원전사업,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 및 성능 개선 사업에 적극 참여하기 위하여 수주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사내외 원자력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식 경영을 통하여 전사적으로 원자력 경험과 기술 자료를 축적 및 공유하고 있다.

맺음말

2006년도 세계 경제는 전년의 성장세에 비해 다소 낮은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나 건설 환경은 민간 주택 건설 위축과 공공 공사 수주 경쟁 심화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어려움 속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대림은 66년 동안 한 우물만 파면서 축적한 기술과 그 동안 얻은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것이다. 또한 원자력계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06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원자력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가정에 행운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한다. ☺